오늘 본문 가운데 8장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동안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 이렇게 왕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라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하라는 요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던져 버리고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은 길을 가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 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라 섬겨왔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었다고 느헤미야 9장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필두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 외에도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단순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천

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자신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 안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곳에 가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곤상을 바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가보니 또 다시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종기와 재앙을 내리시니 그곳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도 하나님의 손이 큰 환난을 있게 하셔서 그 성의 모든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가드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에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독한 종기로 심히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제사장 그리고 복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를 블레셋의 성읍 수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릴 것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와 같은 제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다분히 자신들의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보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레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만일 그 소들이 수레를 끌고 벧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여길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소들은 수레를 이끌고 벧세메스로 올라 갔습니다. 블레셋과 그들의 신 다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분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 다짐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고 여호와께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8장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벗어나 세상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길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서 살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들의 제안이 '사악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지 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흑백 티비와 같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 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다시 보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야 말로 총천연색 칼라 티비와 같은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생의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분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